

농식품부 등 4개 기관, R&D 과제 발굴



▲농식품부 전경

전국 7개 육성지구 중심 클러스터 고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2028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발굴을 위한 통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산림청(청장 박은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함께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8년도 농림식품 4개 기관 통합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기술수요(과제 단위)와 사업수요 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를 중심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농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통합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연구개발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 개별 기술 개발뿐 아니라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기획까지 연계해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농림식품·농업·산림·검역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공동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관별 전문성과 다양한 연구 영역을 연계해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업과 분야 간 융합이 필요한 신규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도출해 왔다. 기관별 주요 조사 분야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는 ▲AI 기반 농식품 산업화 ▲첨단바이오 ▲스마트농업 ▲농기계 ▲미래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진흥청은 ▲기초·기반·실용화 연구 ▲첨단정밀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산림청은 ▲첨단 임업경영 ▲AI 기반 산림재난 대응 ▲목재산업 ▲산림바이오 ▲산림환경·복지 등을 조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방역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대응 기술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받는다.

아울러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연구과제 중복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농식품부-농촌진흥청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의 ‘수요조사-정기수요조사’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IRIS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과 농산업체, 생산자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공고문과 제출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누리집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ontimes.com



농촌진흥청, 우수 보리 11품종 농가 보급

겉보리·맥주보리·쌀보리 등 용도별 맞춤형 품종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우수 보리 종자 11품종을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품종은 겉보리 4종, 쌀보리 3종, 맥주보리 4종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헤누리·헤맑은·백수정찰·참하리·강맥’ 등 5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공급 여부와 신청 방법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9월 8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싸누리·헤미·강호청·호강·광맥·호단’ 등 6품종을 선착순 판매한다.

종자 가격은 20kg 기준 겉



▲겉보리 헤누리

보리와 맥주보리 2만7천340원, 쌀보리 2만8천920원이다.

품종별로는 겉보리 ‘싸누리’와 ‘헤미’가 엿기름용으로 적합하며, ‘헤누리’는 사포나린 함량이 높고 ‘헤맑은’은 식해 제조 시 갈변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쌀보리 ‘백수정찰’은 밥의

색 변화가 적고 찰기가 좋으며, ‘강호청’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호강’은 병해와 도복에 강하다.

맥주보리 ‘참하리’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10% 많고 발효 효율이 높으며, ‘강맥’과 ‘호단’은 병에 강하고 ‘광맥’은 내한성이 우수하다.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는 창의 인재 육성 대학

수업료, 기숙사·급식비 등 전액 국비지원

2학년 농어장 현장실습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모집일정

구분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수시 1차	2026.9.7.(월) 09:00 ~ 9.30.(수) 18:00	2026.11.18.(수)
수시 2차	2026.10.12.(월) 09:00 ~ 10.23.(금) 18:00	2026.12.16.(수)

모집전공

작물·산림학부	식량작물, 특용작물, 버섯, 산림, 조경
원예학부	채소, 원예환경시스템, 과수, 화훼
축산학부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말산업반려동물
농수산융합학부	농수산푸드테크, 농수산비즈니스, 산업곤충, 수산양식

모집인원 570명

수시 1차				수시 2차
일반전형	농수산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231	124	18	59	138

문의 063-238-9621-3 / www.af.ac.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제공

농정원, 공공데이터·AI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아이디어 기획·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작 18개를 선정하고, 지난 13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90점이 접수됐다.

부문별로는 ‘아이디어 기획’

에 190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공공데이터 활용 105점, 팜맵데이터 활용 85점이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는 100점이 접수됐다. 접수작은 1·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 18점이 선정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AI 기반 가축 전염병 사전 방역 네비게이션’을 출품한 Zyra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인 농정원장상은 ‘스마트벌통 및 자동문개폐기 앱’을 개발한 Webee팀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도방 기집 AI 모니터링’을 제안한 한뼉AI팀과 ‘20년의 날씨 기록을 통한 농장 시뮬레이터’를 제출한 철부지팀이 각각 대

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휴경·불법 전용 적발 위험 진단 솔루션’을 제안한 D.bro팀과 ‘팜맵 약취 알리미’를 출품한 e편한농장팀이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수상자들은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을 비롯해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연계, 홍보물 제작 등 창업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농정원 관계자는 “농업·농촌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AI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 아이디어의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상작과 시상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ontimes.com